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2월 16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교도소에 대학반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

재소자를 위한 대학 학위는 재범율을 극적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교도소에서 대학반 예산 지원을 통해 재소자들이 대학 학위를 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주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재소자를 위한 대학 교육 투자가 재범율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수용 비용에 드는 세금 달러를 절약함이 밝혀졌습니다. 투옥 중에 대학 학위를 따는 사람들은 다시 투옥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뉴욕주 교도소의 재소자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교도소의 남녀들에게 대학 학위를 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주의 비용은 줄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이롭게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우리의 제도에서 재소자마다 년 $60,000을 소비하는 데 출옥자들이 다시 투옥될 가능성은 40%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우리 교도소에서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뉴욕주를 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결과는 훨씬 더 좋음을 증명합니다. 대학 학위를 갖고 출옥하는 사람은 그 교육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얻고 다시 범죄 사이클에 빠지는 것을 피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생을 재출발할 진정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10개 교도소, 즉, 주의 각 지역에 하나씩 대학 수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준학사 및 학사 학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위는 일반적으로 2 ½ ~ 3년 걸릴 것입니다. 주정부는 재소자가 학위를 따도록 인가 프로그램에서 대학 교수 및 반을 제공하는 교육협회로부터 반응을 구할 제안 요청서(RFP)를 2014년 3월 3일부터 발행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한 사람을 투옥하는 데 년 $60,000을 소비하며 교도소들의 총비용은 약 36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재소자에게 1년의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년 약 $5,000이 듭니다. 현재의 연구 결과, 대학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재소자들이 교도소로 돌아올 확률이 크게 낮아짐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주의 현재 재범율은 40%입니다.

재소자를 교육함으로써 뉴욕주는 수감자들이 출옥 후의 삶을 더 잘 준비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소자의 과반수가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수자 커뮤니티의 실업에 불균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17명의 백인 남성 중 1명에 비해 3명의 흑인 미국 남성 중 1명, 6명의 라티노 남성 중 1명이 자신의 평생에서 어느 시점에 투옥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주 재소자 모집단은 49.2%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24%가 히스패닉, 24.1%가 백인 및 2.7%가 기타로 구분됩니다.

1994년 및 1995년 PELL 및 TAP 교부금의 중단 이래 뉴욕주 교정커뮤니티감독부(DOCCS)는 재소자를 위해 고교후 교육을 위한 민간 자금 사용을 지지해왔습니다. 대학 프로그램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DOCCS는 2007년에 교정 시설, 같은 지리적 지역 내의 대학 기관, 외부 민간 자금원 사이의 실무 제휴 관계를 확립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상원의원 Ruth Hassell-Tho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교육은 출옥 후 남녀들이 삶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교도소의 이러한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는 수혜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재소자 감소로 납세자 달러가 절약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커뮤니티의 강점을 향상하기 위해 이 진보적 조치를 취하신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주 하원의원 Karim Cam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대학 학위를 딸 기회로 재소자들은 석방시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이러한 남녀들이 범죄 활동 및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는 미래에 대한 진보적 투자로서 가족이 같이 생활하도록 돕고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면서 교도소 제도의 비용 및 규모를 줄일 투자입니다."

주 하원의원 Jeffrion Aub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남녀들에게 출옥 전 대학 학위를 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의 재범율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재소자들에게 범죄 활동의 재순환에 빠지기보다 정직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새 길과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도소 인구 크기를 줄임으로써 납세자 달러를 절약할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소수자들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출옥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도와 궁극적으로 더욱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이 이니셔티브를 후원한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주 하원의원 Daniel O'Donn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원 교정위원회 의장으로서 본인은 우리 재소자들과 교도소 모두를 위해 대학 프로그램의 이점을 몸소 목격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 전역의 12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본인은 많은 재소자, 교도소 직원 및 현재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대학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재투옥 관련 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불행한 재범 사이클을 줄이는 것은 특히 이 제도가 소수자 커뮤니티에 갖는 차별적 및 불균형적 영향 때문에 도덕적 명령입니다. 대학 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그렇게 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입니다. 본인은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도소 제도를 향한 이 첫 걸음을 내디딘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Korean

Fortune Society의 전회장이자 JustLeadershipUSA의 창립자 겸 총재인 Glenn E. M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ustLeadershipUSA는 주 교정 시설에서 투옥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 대안을 지원하는 그의 다면적 공공 안전 전략에서 또 하나의 조치인 대학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Andrew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증거 기반 재진입 프로그램으로서 귀한 납세자 달러를 절약하면서 공공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정화합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은 유사한 결과를 추구하는 다른 주지사들에게 모범입니다. 그것은 미국 교도소 모집단을 2030년까지 반감하려는 JustLeadeshipUSA의 목표와 궤를 같이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